

경제부처, 중소·벤처기업 살리기 주력하기로

재정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일제히 '중소·벤처기업 살리기'를 올해 주요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중소·벤처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재정경제부는 '투자·소비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벤처기업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도 올해 주요추진 정책의 하나로 '현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개발'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 조정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을 530억원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부품·소재 등 취약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선진형 벤처캐피털 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우수 벤처캐피털과의 제휴를 통해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역시 올해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2010년까지 패키지 SW 국산화율을 현재 18%에서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SI산업의 경우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 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IT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IT 중소·벤처활성화대책(IT SMERP)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자부, 2010년 까지 글로벌 중견기업 100개 육성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에서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200~300인 규모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치중해 고용 창출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스타 100계획'은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며, 특히 고용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통부, IT 렌탈 방식 정보화 성공 사례 집 발 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빌려 쓰는 정보화 방식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례를 모은 정보화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책자형과 바인더형으로 제작한 성공사례집 <정보화 e현장 속으로>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요식업 등 총 39개 업체의 사례를 수록했다. 과거 도면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3차원 가상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정보화 도입 전과 후의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화 도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체들이 유사 중소기업체의 성공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안내책자로서 활용도를 높였다.

책자형은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한국정보통신, 엘리온정보기술 등 5개 서비스 사업자 및 우체국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되며 바인더형은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마케팅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rentit.or.kr)에서도 성공사례집의 내용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02-750-1231)

특 허 청 , 24시 간 365일 특 허 행정 온 라 인 서 비 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4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첨단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일명 특허넷Ⅱ) 개통식을 거행하고 국내·외 특허행정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후 8시까지였던 각종 온라인 민원을 평일에는 24시까지, 7월부터는 공휴일에도 서비스하며, 11월부터는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원격지 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심사관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미 60여 명의 심사관이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계획으로 민원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재택심사 실시로 우수심사관 유치효과도 예상된다.

이제 민원인은 세계 최초로 국제특허(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출원 서비스도 안방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IITA, IT인 프 라 구 축 에 올 해 안 에 859억 원 지 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 김태현)은 지난 3일 IT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R&D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달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도시험망, 아태지역 연구망, 아시아·유럽간 초고속 연구망 등 첨단인프라망 구축에 121억원, IT SoC, 광통신부품, 네트워크 장비 등 연구환경 조성에 391억원, IT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실화, 자금조달 등 연구성과 확산에 153억원, IT기술혁신정책 연구에 194억원 등 29개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분야를 선정해 총 859억원이 지원된다. IITA는 상반기 중 사업비의 80%를 집행하고 8월까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중 소 IT 기 업 해 외 진 출 컨 설 팅 지 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해외 현지 컨설팅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들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높은 시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IT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략 마련과 시장진출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2005년도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중소 IT기업 6곳을 선정하고, 업체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3월 30일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고 다음달 제품의 현지시장성 및 마케팅, 수출준비도, 해외진출 의지 등을 평가해 기업 선정을 마무리한 뒤 선정 기업별로 3~4개월간 전략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차 차 세 대 성 장 동 력 산 업 8월 까 지 최 대 30개 선 정

정부는 다음달 이른바 '차차세대성장동력' 선정 작업을 위한 '차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위원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8월까지 10~30개의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TV, 로봇 등이 '차세대 성장동력' 이라면, 그 이후를 책임질 유전공학, IT, 나노분야 등은 '차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미 761개 미래기술 후보군을 지명하고, 이 가운데 10~30개의 차차세대 성장동

력 분야를 선정기로 했다. 과기혁신본부 측은 차차세대 성장동력 선정과 관련,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연구조사 과제로 2005~2030년 기술예측조사를 마쳤고, 이 결과를 다음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뒤 곧바로 '차차세대국가전략기술 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술수준, 인력, 산업규모와 투자비용 등 다각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는 8월까지 10~30개의 차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할 것"이라며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차세대의 기술전략을 범국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 민간 해외진출 지원센터 활용사업 신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최적의 민간 컨설팅 회사를 연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 업 내 용

- 지원분야 : 수출 바이어 발굴, 기술협력선 발굴, 전략적 제휴 파트너 발굴, 해외투자 및 법인 설립 진출, 외국인 투자 유치
- 지원내용 : 기타 해외진출 관련 용역
- 지원내용 : ① 업체의 요청에 맞는 최적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회사 연계
- 지원내용 : ② 해외진출 컨설팅 용역비의 80% 지원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싱가포르 2000만원까지 / 기타 지역은 1200만원까지)

신 청 · 접 수

- 신청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추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 지원절차 : ① 지원 중소기업체 선정 - 해외진출 프로젝트 요청서 제출(지원업체)
- 지원내용 : ② 해외진출 지원 Proposal 제출(민간 해외진출 지원센터)
- 지원내용 : ③ Proposal 검토 및 상담을 통한 최적 센터 선정(지원업체)
- 지원내용 : ④ 개별적 컨설팅 계약 체결(민간센터 및 지원업체)
- 지원내용 : ⑤ 업체별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 및 용역대금 지원(민간센터, 지원업체, 중진공 공동 진행 / 용역수행은 7개월 이내)
- 신청기간 : 3월 25일(금)까지
- 신청방법 : 해외벤처넷 홈페이지(global.smba.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2-769-6857, 6849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24, 4476

제 8 기 벤 처 CFO 과 정 개 설

한국CFO스쿨은 벤처기업 CFO와 CEO에게 필수핵심역량을 보강해줄 재무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한다.

- 대 상 : 벤처기업 재무와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CFO 및 CEO
- 기 간 : 3월 22일 ~ 5월 1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예외, 4월 4일(월) 실시)
- 장 소 : 삼성동 미래에셋빌딩 14층 강의장(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출구에서 2분)
- 수 강 료 : 84만원(부가세 별도)
- 수강료 할인정책 : 10만원 할인 - 자본금 5억 이하 또는 직원수 5인 이하 소기업(선착순 6인 제한)
- 수강료 할인정책 : 5만원 할인 - 한국CFO클럽 정·준회원, 한국CFO스쿨 교육 수료자, 한국CFO클럽협력기관 참가자
- 신청방법 : 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작성 송부(신청서는 별도양식)
- 신청방법 : ② 수강료 입금(국민은행 873201-04-016024 / 예금주: (주)한국씨에프스쿨)
- 문 의 처 : 전화 02-552-6489, 팩스 02-552-6467, 이메일 edu@cfoschool.co.kr

VD Scrap



▲ 2005년 3월 2일 디지털타임즈 34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 성장동력의 쫓겨들 다시 뛰기 시작한 벤처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한 특집기사



▲ 2005년 3월 10일 전자신문 2면

이현재 부총리 사임 이후에도 벤처 활성화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재경부 김광림 차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기사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R&D특구 5개위 구성

대덕밸리 벤처연합회는 지난 6일 대덕 R&D특구 출범에 앞서 전반적 조직의 변신을 위해 5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위원회는 △대덕 R&D특구 기획위원회 △금융·법률 추진위원회 △경영혁신 위원회 △마케팅강화위원회 △조직역량 강화위원회 등이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대덕 R&D특구 출범에 따른 벤처기업의 위상 변화 모색, 연구소와 민간기업간 협력벤처 설립, 조직혁신 등 구체적 사업 계획도 시행키로 했다.

메가와티 인니 前 대통령 방문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덕밸리를 전격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VIP급 인물이 대덕밸리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을 찾아 국내 바이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연구시설을 돌아보며 국내 기술 수준을 체험했다. 이어 생명연의 주선으로 대전시를 방문,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협력을 적극 모색했다.

대
덕
밸
리

NEWS

MS,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모바일 연구소 개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과 MS본사 피터 크눅 모바일·임베디드 디바이스 사업부 총괄 선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S 모바일 이노베이션 랩’(Mobile Innovation Lab) 개소식을 개최하고 3년 동안 3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MS 모바일 연구소로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차세대 단말기 개발 및 모바일 솔루션 서비스를 중점 연구하게 되는 이 연구소는 3년간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운영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안에 주요 단말기 제조기업과 차세대 단말기 개발에 나서는 등 이를 위한 공동기획과 연구과제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
학
기
술

NEWS